

제4절 관방유적과 문화재*

1. 성곽(城郭)

성은 보통 성벽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넓다. 처음에는 흙을 파서 도랑을 만들거나 흙으로 쌓았지만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나무로 만든 목책과 돌로 쌓은 석축, 벽돌로 쌓은 전축도 생겼다. 전형적인 성곽은 네모꼴로 쌓은 성과 다시 그밖에 네모꼴로 쌓은 곽(郭)으로 구성되는 이중의 벽이다. 안쪽의 것을 성 또는 내성이라 하고, 바깥쪽을 곽 혹은 외성이라고 한다. 삼중의 경우에는 맨 안쪽을 내성, 다음을 중성, 바깥을 외성이라고 하며 만약 도성이면 안쪽을 왕성(王城)·궁성(宮城)·황성(皇城), 그 바깥쪽은 나성(羅城)이라 부른다.

성은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성안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위적 시설을 말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지형적인 조건과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의 성곽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지가 많아 특히 산성(山城)이 발달하였으며, 네모꼴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정원형(不整圓形)이 많다.

성곽발생 이론에 따르면 농경집단이 유목집단의 약탈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성곽을 축조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넓은 농경지 배후의 낮은 구릉 위의 성곽들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구릉상의 성은 방어면에서 더욱 발전하여 산 위로 올라가 산성을 축조하게 되었고, 평소의 정치·경제·문화 활동과 특히 교통상의 여건으로 말미암아 평지나 낮은 구릉을 포용하였다.

* 제4절은 최인선 집필임.

1) 순천부읍성지(順天府邑城址)

순천부읍성은 현재 시가지 중심부(매곡동·중앙동·영동·동외동·금곡동 등)에 위치하여 읍성과 관련된 시설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타원형의 성지만 남아 있어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성곽은 연자루(燕子樓) 동편에서 시작되어 동외동을 안고 돌며 현 순천의료원 로터리로 해서 호남사거리를 경유하여 남문다리로 연결되었다. 성의 동문은 금강호텔 앞, 북문은 순천의료원 로터리 부근, 서문은 현 호남사거리 옆, 남문은 남문다리 부근으로 연자루를 관문으로 하였다.

순천읍성은 삼국시대에 처음 축성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분명치 않다. 『체종실록』 권50을 보면 순천부읍성은 1430년(세종 12) 12월에 여러 읍성들과 함께 축성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체종실록지리지』에 “읍석성주액오백팔십일보(邑石城周厄五百八十一步)”라고 하여, 읍성은 석성이고 전체 규모는 581보(낙안읍성 592보)였다. 그러나 세종대에 축성된 순천부읍성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1451년(문종 1) 8월 하삼도체찰사 정분(鄭芬)의 순찰 결과보고에 순천부읍성은 그대로 완성시킬 ‘잉구(仍舊)’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이때 읍성의 규모는 둘레 3,383척, 높이 12척, 여장(女牆) 514곳, 여장 높이 3척, 적대 6, 성문은 4곳이었다. 그 가운데 2곳의 성문에만 웅성(甕城)이 있었으며 성내에는 우물 6곳, 연못 8곳, 해자(垓字) 둘레 3.7척으로서 2곳의 웅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곽시설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후 『친증동국여지승람』에 “석축주삼천삼백팔십삼척고십오척내유사지사정(石築周三千三百八十三尺高十五尺內有四池四井)”이라고 하여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 1923년에 순천향교에서 간행된 『충평지』에 “임술신증읍성금무성문사문금지유남문(壬戌新增邑城今無城門四門今只有南門)”이라고 하여 1922년에는 남문(연자루)만 남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수광이 1618년에 편찬한 『충평지』의 승평부지도에 따르면 성곽의 4방위에 남문(2층 누각의 연자루)과 동문·서문·북문이 있고, 성내에는 동헌(東軒)·아사(衙舍)·공북당(拱北堂)·연지(蓮池)·객사(客舍)·망경루(望京樓)·관풍루(觀風樓)·세병헌(洗兵軒)·본창(本倉)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조선 전기부터 해안가에 가까운 평지에 읍성을 쌓기 시작한 것은 적극적인 비어체제(備禦體制)로의 전환책이었다. 그 전 시기에는 대왜대비책으로 수비에 유리한 산성을 주로 축조하였으나, 세종대에 들어서서 대마도를 정벌하는 등 왜구를 해안선에서 막아 피해를 줄이고 민력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방어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2) 낙안읍성

이 읍성은 낙안면 동내·서내·남내리 일대에 있는 평지성으로 『태동지』에 따르면 “백제시대에는 파지성(波知城)이었으며 읍성은 고토축(古土築)이었으나 조선시대에 석축으로 개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친증동국여지승람』에는 1455년(단종 3) 전라도 관찰사였던 이석형(李石亨)의 기문(記文)에 있는 “태조 6년 이곳 출신인 절제사 김빈길(金賓吉)이 부민을 거느리고 토성을 쌓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체종실록』에는 1424년(세종 6) 9월에 “낙안성의 토축성을 잡석(雜石)으로 개축하되 구기(舊基)에 넓혀 쌓았다.”고 하였다. 위 내용을 보면 원래는 토성이었던 것을 세종 때에 석성으로 개축하였으며, 그후로 현재의 석성규모로 개축하였던 것 같다.

낙안읍성은 진산인 금전산 남쪽의 평지에 가까운 완만한 경사지에 동서축이 긴 장방형으로 배치되었고, 성의 남쪽으로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성의 둘레는 1,410m 이고, 북쪽에는 해자를 파고 금전산의 남쪽 전담 사이로 흐르는 물을 끌어들이어 사용한 흔적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을 보면 높이 4.2m, 상부 너비 3.5~4.8m, 하부 너비 4.5~6m 정도이다. 축조의 내용을 보면 큰 암석을 거칠게 길면을 다듬어 허튼층쌓기로 하였는데 큰 돌 사이에는 잔돌을 끼워 마감하였고, 상부로 점점 올라갈수록 작은 돌을 사용하였다. 내부는 민가와 텃밭으로 사용되면서 성벽이 흐트러져 내탁(內托)처럼 보이나 내외협축(內外夾築)을 하였다.

성내 유적으로는 객사, 임경업 장군의 비각, 중요 민속가옥 9동, 고목 15그루 등이 있다. 옛날에는 동문(낙풍루)·남문(쌍청루)·서문(낙추문)·빙허루(憑虛樓) 등도 있었다고 한다. 1984년부터 성곽 보수 및 관아건물 복원 등 종합적인 정비공사가 이루어져 지금은 거의 정비가 끝난 상태이다. 1983년 6월 14일 사적 제302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3) 순천 신성리성(新星里城)

이 성은 해룡면 신성리 5번지 해안가에 있으며, 면적은 9만 6,170평에 이르고 왜교성(倭橋城)이라고도 부른다.

신성리성은 정유재란 당시에 축조된 성으로 기록에는 ‘왜교’·‘예교(曳橋)’·‘망해대(望海臺)’로 나타나 있다. 정유재란 당시 왜군은 한때 경상·전라·충청도까지 점령하였으나 조선·명나라 군사의 완강한 반격작전과 곧 닥쳐올 추위에 대비하여 1597년 9월 16일 군사들을 모두 남해안 일원으로 철수시키고 겨울철을 이용, 문천을 비롯하여 울산·양산·창원·거제·고성·사천·남해 등 남해안 일대에 성곽을 쌓았다. 이당시 신성리성은 고금도에서 퇴병한 소서행장의 섭진수(攝津守)에 의해 이중으로 축조되었다. 왜교·예교란 명칭은 축조 당시 왜군들이 피습이 두려워 성 주위에 흙을 파내고 바닷물을 끌어들이 마차 해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출입의 편의를 위해 다리를 설치한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장방형을 이룬 이 성은 지금도 끊긴 데가 한 곳도 없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는데 성을 쌓은 돌의 크기는 1.5~2m, 내성의 높이는 4m, 외성의 높이는 5m, 둘레길이는 약 3,000m이다. 1963년 1월 21일에 사적 제49호로 지정되었다.

4) 순천 검단산성(劍丹山城)

이 산성은 해룡면 성산리 산48번지 검단산의 정상부에 있다. 산성이 있는 이 산은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안산’ 혹은 ‘검단산’으로 부르고 있으며 지도에는 ‘피봉산(皮烽山)’으로 나타나 있다. 피봉산은 해발

138.4m의 낮은 산이며, 여수반도와 순천지역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광양만이 눈앞에 보이는 요새지역이다.

산성은 피봉산의 7~9부 능선에 형성되어 산의 중봉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산 정상부의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있다. 해룡면사무소에서 신성리성으로 가는 도로변에서 등산로를 따라 15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산성에 이른다. 이 산성은 '조선산성(朝鮮山城)' 또는 '한성(漢城)'으로 표기되어 정유재란 때 조선과 명군의 연합군이, 신성리의 왜교성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과 대치하면서 쌓은 조선 시대의 산성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 더 이상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성이었다.

그런데 1996년 12월에 순천대박물관에서 이 산성을 발굴조사한 결과 백제시대에 축성한 석성(石城)으로 판명되었다. 성곽의 규모는 전체 길이 약 430m, 외벽 높이 1~3m(추정 높이 약 4~6m), 내벽 높이 2m 이상, 성벽 두께 5m 정도이다. 산성의 형식은 전형적인 테피식 산성(산 봉우리에다가 마치 테를 두른 것처럼 산성을 쌓은 형식)이며, 축성법은 협축법(夾築法 : 성벽 내외면을 모두 같은 높이에 달하는 석벽면으로 구축하는 방법)이었다. 내외벽석 부분은 산의 경사면을 석비례층까지 절개하여 기초부분이 자연적으로 견고하게 한 후에, 별도의 기단을 두지 않고 곧바로 벽을 거의 수직으로 쌓아 올렸다. 벽석은 20~80m 크기의 활석을 사용하여 면이 고른 쪽을 수평으로 맞추어 쌓아 올렸고, 정연하지 않은 면은 사이사이에 잔돌로 췌기를 박았다. 성돌의 크기는 상하의 석재에 차이가 거의 없다. 성벽의 내외벽 사이는 자연경사면, 즉 석비례층 위에서 30~50cm 정도 높이까지 흙을 채우고 그 위에 잡석들을 채웠다. 성의 외벽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층의 3~4단까지 붉은 점토와 잡석들로 다짐하였다. 이러한 축성기법은 이 산성이 백제시기의 축성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 시기 협축법의 예는 충북 보은에 백제의 매곡산성(梅谷山城)과 신라의 삼년산성(三年山城)을 들 수 있다.

성곽 내부의 시설물로는 정상부에 규모가 큰 저장공(가로 7m, 세로 6m, 깊이 2.6m)이 노출되어 있고 평기와와 토기편들이 많이 출토된 추정 건물지지역도 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이 백제시기의 와편들과 토기편들이고 철제 화살촉도 2점 나왔다. 와편의 등문양은 크게 격자문, 승석문, 선문, 무문 등으로 구분되며 격자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기와의 분할은 외도로 전면을 깨끗하게 절단하였으며 내외면을 다시 손질한 경우도 많다. 내면은 포목흔이 뚜렷하여 전형적인 백제 기와로 구분되는 모골흔적이 있는 것도 있다. 겉면에 승석문이 시문되고 내면에 굵은 포목흔이 있는 평기와는 지금까지 발견된 예가 극히 드문 형식으로 대전 월평동 백제 유적과 전북 남원시 주승면 주당리,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산성의 축성시기는 체성(體城)의 축성기법이나 출토된 와편들과 토기편들로 보아 6세기 말에서 7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성벽의 보수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와편들도 거의 백제시기의 것만 출토된 점으로 보아 이 산성은 주로 백제 말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기편들 가운데 통일신라 초기의 것들이 보이고 있어, 산성의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하면 보다 분명한 성격들이 파악될 것이다.

호남지역에는 백제산성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정식 발굴조사를 통한 백제시대의 석성조사는 지금까지 없었다. 익산 천호산성 등이 석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발굴조사가 되지 않아 축성기법 등 정확한 성격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검단산성은 이 지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백제시대의 석성으로 그 중요성은 대단하며, 앞으로 조사될 백제 석성의 표본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의 산성은 거소(居所)가 아니라 창고에 병기·군량을 비축하였다가 유사시에 농성고수(弄聲固守) 하는 기능, 즉 군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수반도의 길목에 위치하고 광양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천해의 요새에 위치한 검단산성의 기능도 역시 군사적 기능, 즉 이 고장을 수호하는 목적의 산성으로 파악된다. 이 산성의 발견으로 백제시대 삼평군(순천지역의 당시 명호이며, 치소는 흥내동 일대의 해룡산 토성지로 추정됨)이 이 지역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산성은 정유제란 때 조명연합 육상군의 지휘부가 주둔했던 임란 전적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 전투는 1598년 9월부터 2개월간 이 산성에서 동쪽으로 약 2.7km 떨어진 왜교성(신성리성)에 전년부터 철용의 요새를 쌓아 호남공략의 발판을 삼았던 소서행장과 대치, 치열한 공방전을 치른 것이다. 이 전투를 왜교성전투라 하며, 조·명·일 삼국의 수륙군이 얽혀 격전을 펼친 뒤 노량해전을 끝으로 막을 내린 임란 7년전쟁의 마지막 싸움을 말한다. 당시 조·명측의 육상군은 명의 제독 유정의 군사와 조선의 도원수 권율의 관군 및 전라도 의병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검단산성을 중심으로 포진한 후, 장도(獐島)와 송도(松島)에 진을 친 해상군(명의 도독 진린과 수군통제사 이순신 휘하의 연합수군)과 기각지세(掎角之勢)를 이루어 왜교성을 공격함으로써 마침내 왜군을 퇴병시킨 전투였다. 그런데 이때에 산성의 보수나 재축조 등의 흔적은 이번 조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전쟁 중인데다 아주 짧은 기간에 이 산성에서 주둔하였기 때문에, 성곽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자연지세 그 자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검단산성은 임란 전적지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1995년 12월 26일에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 157호로 지정되었다.

5) 해룡산 토성지

이 토성지는 행정구역상 흥내동의 금성·내동·홍두, 오천동의 통천·오산·오림 등의 마을에 속해 있고, 순천전문대에서 대대동으로 가는 길가에 있으며, 지금까지 학계에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이곳은 해발 75m의 낮은 야산인데 일부분만 산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어 있다. 이 산의 동쪽에는 동천이 흐르고 서쪽에는 이사천이 흐르며, 사방으로는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 낮은 야산을 해룡산이라고 지칭한 첫 기록은 『린증동국여지승람』 산천조의 “해룡산재부남십리(海龍山在府南十里)”에서 찾을 수 있다. 같은 기록에 “인제산재부남사리(麟蹄山在府南四里)”, “난봉산재부서사리(鸞鳳山在府西四里)”라는 기록을 참고하면 거리나 방향이 맞아 조선 전기에 이 야산을 해룡산이라고 하였음은 분명하다.

해룡산에 토성이 있었다고 전하는 사료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이수광의 『증평지』 창고조(倉庫條)에는 “해룡산에 토성의 옛터가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공세를 받아들이어 조운하는 땅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태동지지』에는 “해룡창고성유토축유지(海龍倉古城有土築遺址)”라고 나타나 있다.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순천부 남서쪽에 인제산이 있고, 그 남쪽 바닷가에 잇대어서 산표시가 있고 “해룡산”과 “고창성(古倉城)”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과 지도의 표기로 볼 때 해룡산에는 옛 토성터가 있고, 조선시대에는 토성이 이미 성곽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해룡산 토성이 어느 시대에 처음 축성되었고 어떤 목적의 성곽이었는가 하는 기록은, 현재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발굴조사는 많은 경비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간단한 현지 지표조사를 통해 그 윤곽의 일단만이라도 파악해볼 수밖에 없다.

현재 이 토성지는 성벽 폭이 약 10~30m 정도이고 높이는 낮은 곳이 2m, 높은 곳은 자연지세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10m 정도까지 이르는 곳도 있다. 전체 길이는 측량을 해야만 알 수 있겠으나, 수백 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이 토성은 낮은 구릉의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축성하였다. 이는 축성에 소요되는 공력을 최소로 줄이고 최대의 방어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며, 구릉 위에서는 높은 성벽이나 누대가 없이도 평야지대를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평지에 가까운 구릉성이 많이 축성되었다. 배수처리 문제 등 기술적인 여건도 고려해보면 구릉상의 축성은 평지보다 훨씬 용이하였다.

해룡산 토성의 성벽에는 외편들이 박혀 있고 성내에는 백제계 혹은 가야계의 회청색 경질토기편·청자

편·분청사기편·백자편·와편 등이 많이 산재해 있다. 이처럼 흩어져 있는 유물로 볼 때 이 토성은 삼국시대에 처음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룡산이 아주 낮은 야산이므로 이 토성은 평지성에 가깝다. 삼국시대의 토성은 거의 구릉을 이용하여 평지에 축조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해룡산 토성은 주위가 평지이고 순천의 양대 하천인 동천과 이사천 사이에 있으며, 바다와도 인접해 있어서 입지조건상으로 볼 때도 삼국시대에 축성했을 가능성이 많다.

토성의 벽에 박혀 있는 와편들은 제작기법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에 이러한 와편들이 박혀 있다는 점은 토성이 무너져 개축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토성은 상당한 기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증평지』 인물조를 보면 “박영규는 견훤의 사위다. 훤의 아들 신검이 훤을 금산사에 가두자 곧 훤이 금성의 태조에게 도망가니 태조가 온 것을 위로하고 상부(尙父)로 존경하였다. 영규가 사람을 보내 태조에게 말하기를 ‘만약 의기(義旗)를 들면 청컨대 내옹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태조가 크게 기뻐하고 그 사자를 후히 대접했다. 그리고 그를 보냈다. 신검을 죽이자 좌승(左丞)의 직을 내렸다. 죽어서 해룡산신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후백제와 고려 초기의 인물인 박영규가 순천지역의 재지세력(호족)인 점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이러한 인물이 죽어서 해룡산신이 되었다는 점은 박영규를 중심으로 한 지배세력의 생활공간이 바로 해룡산 일대였음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의 기록이지만 1784년에 조현범이 지은 『항남약부』 「인제산」의 “박영규는 해룡산 아래 흥안동(옛 성터가 있다)에 웅거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과 성벽에 남아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와편들은 적어도 이 시기까지 토성이 성곽으로서의 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토성이 축조된 시기 즉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초기까지 순천지역의 치소는 해룡산 토성이 있는 이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짙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룡산에는 해룡창이란 창고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고려 초기의 사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 더욱 주목된다. “국초에 남도의 수군에 십이창(十二倉)을 두어... 승주는 해룡창이라 하고... 성종 11년(992)에 조선(漕船)으로 경창(京倉)에 운수하는 운비를 정하니... 조양포(전에 사비포라 하였고 승평군의 해룡창이었다)는 6석을 운반하는 데 운임이 2석이다.”(『고려사』 권79, 지33 식화2 조운조)

위의 기록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통국여지』 순천도호부 고적조(古蹟條)에 “고해룡창(古海龍倉) 재해룡산조양포고려초설창어차목부근주현조세조지경즉십이창지일금유토성고기(在海龍山潮陽浦高麗初設倉於此牧附近州縣租稅漕至京卽十二倉之一今有土城故基)”라고 하여 그대로 나온다. 그런데 이 해룡창이 있던 곳을 현재의 해룡면 해창리로 비정하고 있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이수광의 『증평지』 창고조에는 “해창(在府南十五里海岸捧田稅作米及舟師格糧于此以便船運)”과 “해룡창”이 각각 별개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창은 해룡면 해창리에 있는 것으로, 해룡창은 해룡산의 조양포(옛 사비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후 고려시대의 해룡산 토성지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성곽 내부의 밭에서 고려청자편들이 출토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순천의 치소 역할이 지속되었을지도 모른다. 현재 순천시가지 중심부(매곡동·중앙동·행금동·영옥동·저전동)에 남아 있는 읍성지는 1430년(세종 12)부터 축성되기 시작하여 순천부의 치소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부터는 확실히 순천부의 치소가 해룡산지역이 아니었으며, 토성의 기능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해룡산 토성지는 개간으로 성벽 일부가 허물어졌지만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그래도 잘 보존되어 있다. 순천시에는 이렇다 할 시민 휴식공간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도시개발의 안목에서 볼 때 해룡산 일대는 그 역사성을 살려 서울의 몽촌토성처럼 복원·개발하고 다용도의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으로 지정하여 잘 보존하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6) 인제산성지(麟蹄山城址)

이 성은 인제동·저전동·남정동·덕월동·상사면 흘산리에 걸쳐 있는 인제산의 중턱에서부터 정상부에 자리잡고 있는 토석의 혼합 산성이다. 산 정상은 해발 346.2m 이며, 지도에는 인제산이 남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인제산성에 대한 기록은 靑丘(靑丘)의 『靑丘縣志』에 “순천부의 진산으로 일명 건달산(建達山)이라고 하는데 옛 성터만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자세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제시대 조사기록인 靑丘(靑丘)의 『靑丘縣志』에 형태나 규모가 약간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인제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성된 테뫼식 산성으로 추정되며, 석축과 토축이 혼용된 특이한 양식을 보인다.

성곽은 현재 무너져서 완벽하게 남아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 흔적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성곽의 높이는 1.5~3m 정도이고 폭은 넓은 곳이 9m에 달하며 주위 둘레는 400m 정도 되는데 전체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그리고 성곽 내에는 피내골(왜군들의 피가 흘러내리던 골짜기)·억만골·처마골(말을 기르던 골짜기)·산죽배기(화살을 만들던 곳)·서당골·큰무쟁이·용지골·절골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 유적으로는 방형의 용지(승평부사가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 작은 샘)와 박난봉 장군의 사당지(용지가 있는 700여 평의 평평한 곳, 축대와 기와편들이 있음)가 있다. 이 사당지에는 박난봉 장군이 공을 드렸다고 하는 마하사(摩訶寺)란 절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인제산성의 축성은, 사후 인제산신이 되었다는 박난봉 장군이 고려에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 전설이 있다.

7) 난봉산성(鸞鳳山城)

난봉산성은 읍성에서 북쪽으로 약 2km 지점인 매곡동 뒷산을 중심으로 약 700m에 걸친 산성이며, 매곡산성(梅谷山城)이라고도 한다. 이 산성은 당시 이 지역의 요새지로 인정되는데, 지금도 산에 오르면 산성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산성은 도성 북문 밖의 외곽방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진왜란 때의 전적지라고 전해오고 있다.

난봉산성에 대한 기록은 靑丘(靑丘)의 『靑丘縣志』에 “옛 성터가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성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다만 靑丘(靑丘)의 『靑丘縣志』에는 성의 명칭이 매곡산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성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서 “높이 2~4간(間), 둘레 약 400간의 방형누지(方形壘址)로서 난봉산의 남향으로 돌출한 일지맥(一支脈)의 산정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방어를 위해 쌓았다고 하나, 축성구조로 볼 때 삼국시대의 성으로 인정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난봉산이란 이름은 박난봉 장군의 묘가 이 산의 동남쪽 기슭에 있어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박난봉은 순천 박씨 중시조인 박영규의 4대손으로 고려 정종 때의 인물이며, 직위가 대장군에 이르러 사후에 평양(平陽: 순천의 옛 이름)부원군으로 책봉되었다.

8) 승주읍 성산산성(星山山城)

『문화유적총람』에 “승주읍과 주암면 경계인 오성산성(五城山城)과 대전을 하기 위해 쌓은 성이라 전해 지는데 이 성은 산상봉(山上峰)을 중심으로 오성산성 방향에만 쌓은 흔적이 있다. 1920년경만 해도 약 300m 의 성터가 있었는데 현재는 100여m 정도의 흔적만 남아 있다. 축성유래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1940년경 석축(石鑿)이 마을 앞 논과 성 주위 산에서도 발견되었다고 전한다.”고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다.

9) 황전면 죽내리 성지

『문화유적총람』에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격전지였다고 전해지는데 성터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잔석이 흩어져 있다. 해발 350m 지점 상봉을 중심으로 타원형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60년대에 석축이 발견되었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확인할 수 없다.

10) 운월령성(雲戛嶺城)

주암면 비룡리 운월령에 있는 토석혼축의 성으로 둘레는 약 109m 에 달한다. 성의 명칭을 운월령성이라 표기했으나 한자의 음대로 읽으면 ‘운알령성’이 된다. 그러나 관행상 운월령성이라 통용되고 있다. 높이 6척, 폭 5척, 길이 60간의 토석혼축성으로 임진왜란 때 왜병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축조된 것이라고 한다.

11) 송광면 이읍리 읍지

정확한 내력과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이읍과 상이읍 사이에 위치한 동피산 부근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논 개간시 집터의 흔적과 많은 기왓장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